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온 힘'

익산시, 바이오 혁신파크·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등 사업 설명

익산시가 국책사업 반영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신속한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를 찾아 익산시 100년 미래를 책임질 주요 현안사업이 국책사업 및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먼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방문해 전국 최초로 유치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연관사업의 융합을 통해 세계적인 첨단 농산업 메카로 부상하기 위한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을 건의했다.

또한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이 국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이어 류근혁 복지부 2차관과의 면담에서 인간-동물-환경 간 감염병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한 '국립 원헬스 통합연구센터 조성'과 국내 희귀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를 위해 익산시의 우수한 지리적 접근성과 농생명 바이오 혁신기관, 보건의료 인프라를 보유 등 입지 최적지임을 적극 설명했다.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과의 만남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디지털 식품 클러스터 구축·운영' 등 익산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헌율 시장은 "중앙부처별로 2023년도 예산편성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세종시무소를 중심으로 전북도와 김수흥·한병도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시 주요 현안 사업이 국책사업 및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누수 없는 시정 운영 '총력'

황철호 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체제 개시

군산시는 황철호 부시장, 시장 권한대행체제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28일 강임준 군산시장의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누수 없는 행정 운영과 시의 당면한 현안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전라북도와 군산시의회에 권한대행 체제 개시를 보고했다.

황철호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대응과 각종 재난재해 예방 등 현장 중심 행정과 다가올 6.1 지방선거의 중립적이고 차질 없는 선거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황 권한대행은 "그간 군산시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 현안들은 시의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차질 없이 챙겨야 한다"며, 누수 없는 시정 운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1994년 1월, 군산시에서 공직에 입문한 뒤, 전라북도 예산과장, 同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복지여성보건국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21년 7월 1일 군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지역경제 반등 위해 행정력 집중

정헌율 익산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간부회의를 28일 개최했다.

정 시장은 "코로나19 비상근무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이 책임감 있게 소임을 다해준 결과 강력한 재정혁신을 기반으로 익산 성장을 옭아맨 난제들을 극복하고 익산 재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쌓이지 않도록 코로나 방역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특별휴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주문했다.

정 시장은 "직무정지 기간 동안 부시장님을 정점으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 공무원 등 전 공무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새 정부 출범뿐만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의 중대한 전환기로 민생경제를 세심히 관리하고 현안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남은 상반기는 지역경제의 V자 반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시기이니, 시민 체감사업을 신속 집행해 업무를 적기에 완료하고, 민생과 실물경제의 회복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정 시장은 "완연한 봄 날씨로 지난 주말부터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며 "상춘객들을 맞이하기에 앞서 관광 활성화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바라며, 경제 선순환과 시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기자

'공기질 측정기' 무료 대여사업 시행

군산시, 실내 공기질 확인 · 실내 환기 중요성 인식

군산시는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운영하고 있는 생활공구 무료 대여사업에 공기질 측정기 품목을 추가해 오는 4월 1일부터 무료로 대여한다고 밝혔다.

생활공구 대여사업은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구매가 부담스럽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공구 20종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 전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실내생활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실내 공기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으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천하고 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

이에 시는 공기질 측정기를 구입, 우선 권역별 8개 읍·면·동에서 시범적으로 무료 대여 운영 후에 대여율이 높을 경우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송동, 나운3동, 조촌동, 흥남동, 소룡동, 미성동, 대야면, 옥산면 주민센터에 공기질 측정기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여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기질 측정기는 집안 또는 차량 안의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농도를 손쉽게 측정하여 환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시민들이 생활공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대형마트 사회적경제기업 상설매장 '상생샵' 운영

익산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28일 사회적경제유통센터 '상생샵'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사회적경제유통센터(이하 상생샵)의 운영을 맡게 된 익산시 협동조합협의회 윤성식 회장 그리고 매장이 자리 잡게 될 홈플러스 안세인 익산점장이 참석해 상생샵의 조성과 운영을 위해 삼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생샵은 행정안전부와 ㈜홈플러스, 지자체가 함께 지역의 사회적 경제 가치 확산과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홈플러스 익산점 4층에 조성되는 상생샵에서는 익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최대 40여 종류가 전시·판매된다.

시는 그동안 박람회나 명절 연휴 기간에 임시적으로 판매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상설매장 운영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에 조성되는 상생샵을 통해 익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널리 홍보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협조해주신 익산시 협동조합협의회와 홈플러스 익산점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기자

군산시, 생생직업체험교실 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초등학생들의 장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생생직업 체험교실'을 개설하고 상반기 체험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도시농업연구원(4.16~17), ▲가상현실전문가(4.23~24), ▲푸드스타일리스트(5.7~8), ▲캘리그라퍼(5.14~15), ▲해양생태연구원(5.21~5.22), ▲상담사(5.28~29), ▲신약개발연구원(6.4~5), ▲수의사·사육사(6.11~12) 등 8개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생생 직업체험 교실은 매주 토·일요일 오후 2시와 3시 30분, 2회차씩 수송동 맘껏광장에서 진행되며, 4월에 운영되는 도시농업연구원 과정과 가상현실전문가 과정은 오는 11일 10시에 군산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건실 아동청소년과장은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발견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남현봉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푸른숲 정원 아카데미' 개강식 개최

익산시가 자연과 공존하는 다이로움 익산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원 아카데미 수업을 진행한다.

시는 28일 전북대특성화캠퍼스 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제5기 푸른숲 정원 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

푸른숲 정원 아카데미는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과 연계해 (사)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가 주관하며,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접수·선정한 50명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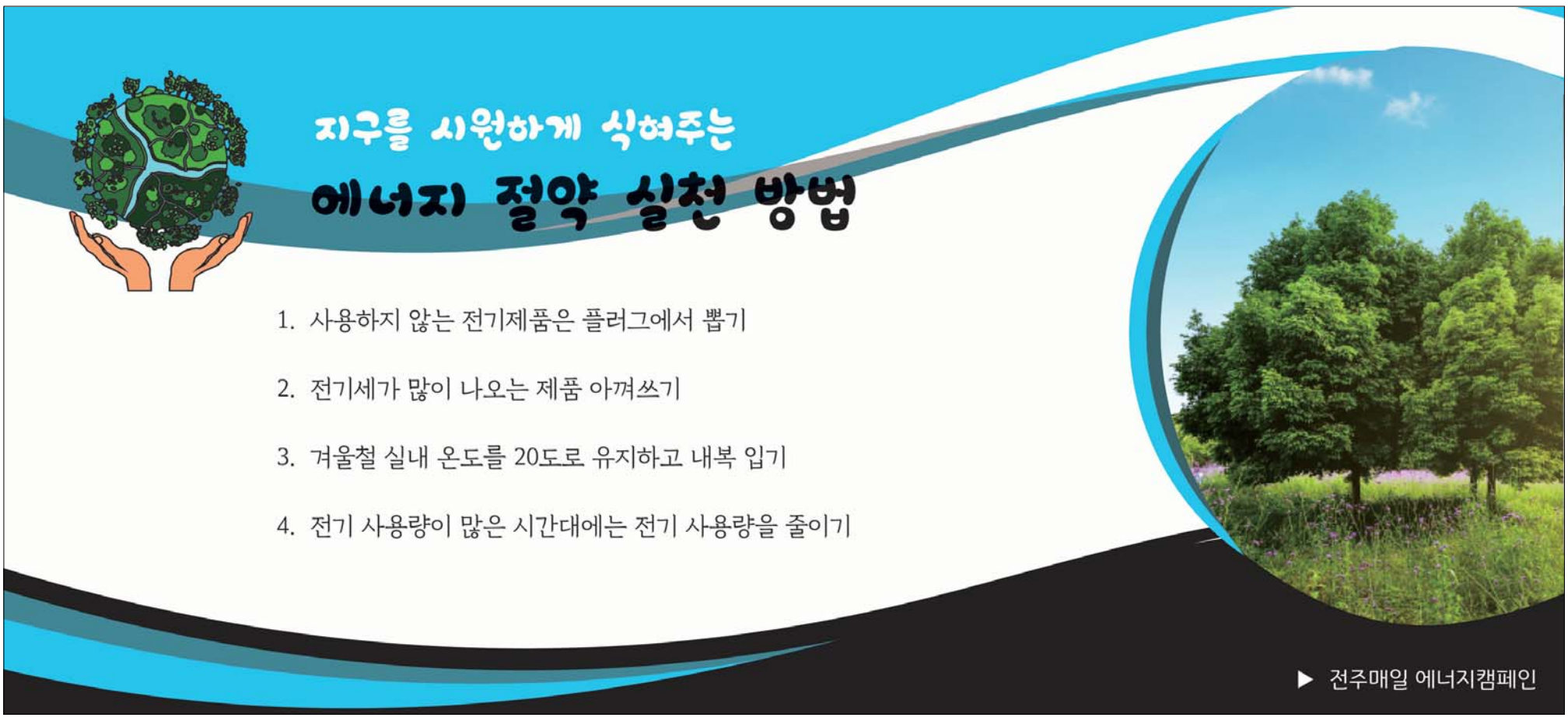
오는 6월 27일까지 3개월간 전북대 특성화캠퍼스(익산) 도서관에서 매주 월요일 총 15회 3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며, 수업 방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비대면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재난대응 우수기관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익산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시는 25일 실전 재난 대응 역량과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재난대응 우수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행정안정부 주관 훈련으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상황을 가정해 우리시의 재난 대응체계 확립과 협업부서 및 각 유관기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점검하는 종합훈련이다.

시는 지난 훈련에서 지진에 의한 동익산역 크레인 전도 및 기차 일부 탈선 사고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익산소방서, 익산경찰서 등 각 유관기관 간에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재난에 대비·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 올해도 재난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와 같은 재난 상황을 전제로 훈련을 진행해 재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익산=이득훈기자